

사회

목포공생원 “이젠 우리가 일본 도와야죠”

1928년 설립 일본인들 도움받아 운영 ‘이웃 사랑’으로 韓·日가교 역할 토크 ‘고향의 김밥’ 보내기 보은의 모금운동

“일본인 어머니가 3000명의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고 윤학자 여사(일본명·다우치 치즈코)가 남편과 터를 닦고 평생 불우한 처지에 있던 이들을 돌보는 목포의 보육시설 ‘공생원’(共生院·사회복지법인 숭실공생복지재단)이 일본 지진피해 돕기 성금 모금에 나섰다.

공생원과 공생원을 거쳐간 사람들, 산하 단체 직원, 원생들은 지난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 쓰나미가 몰아닥친 직후부터 성금을 모으고 있다. “같은 나라 사람들도 돌보기 힘들었던 어려운 사람을 친자처럼 아껴준 고마운 일본 사람들을 돕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

공생원은 무기한 성금운동을 벌여 모금한 돈으로 재난을 당한 일본사람들의 허기

를 채워줄 김밥재료를 구입, 주 1회 항공편으로 일본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진 여파로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일본인들을 구명하기 위한 배려다.

정애라(49) 원장은 “일본인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던 공생원이 이들을 돕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생원이 모금운동에 나선 것은 윤 여사가 뿌린 사랑의 씨앗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이던 1928년, 열아홉의 전도사였던 고 윤치호 원장은 7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공생원의 주춧돌을 놓았다. 그의 품성에 매료된 당시 일본 관리의 딸 다우치 치즈코씨는 윤 원장과 결혼해 ‘고아 사랑’을 경영 실천했다.

윤 여사는 한국전쟁 때 남편이 아이들 먹일 식량을 구하려 광주로 나섰다가 행방불명되자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공생원 원



故 윤학자 여사

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1968년 56세의 나이로 운명하기 전까지 30여년간 3000여 명의 고아를 자식처럼 길렀다.

이 공로로 1962년 정부로부터 문화훈장, 제1회 목포시민의 상(1965년), 일본 황실의 남수포상을 수상했다. 목포시는 고인을 기리기 위해 처음으로 시민장을 지었다.

공생원은 한국과 일본간 민간교류의 상징이 됐다.

일본항공(JAL)은 지난 1971년 공생원 기속사를 지었고, 75년에는 일본 기업과 개인들의 모금으로 기속사 1개 동을 추가 완공했다. 99년 태풍 ‘율카’로 공생원의 본관 일부가 붕괴됐을 때에도 일본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다가왔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총리의 부인 치즈코(千鶴子) 여사 등 일행은 지난 2008년 설립 80주년을 맞은 공생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정애라 원장은 “일본 지진 소식에 공생

원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열려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가 힘들 때 봉사해주고 후원했던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 일본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생원은 일반인들의 후원도 받는다. 계좌는 신한은행 100-027-059476.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블우 어린이 4000여명 거처가

▲공생원=1928년 전도사였던 윤치호 원장이 부모 없는 어린이 7명을 거둬들여 목포시 호남동 18번지에 설립했다. 아내인 고 윤학자 여사가 6·25 전쟁통에 실종된 윤 원장에 이어 원장을 맡아 30여년을 운영했다. 윤 여사 사후 아들인 윤기(68)씨와 윤기씨의 딸 윤복(37)씨가 원장을 이었다. 현재는 윤여사의 외손녀 정애라씨가 10년째 원장으로 있다. 공생원을 거쳐간 사람은 4000여명이 넘는다. 현재도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70여명이 생활 중이다. 공생원은 목포장애인요양원, 공생재활원, 서울 한남직업전문학교 등 국내외 16개 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 전남대 일본학과 학생들도 “일본의 눈물 닦아주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도 일본 대사관 앞에 눈물을 흘렸다. 근로정신대 양금덕(82·광주시 서구 양동) 할머니는 15일 오후 5시께 광주시청 1층에서 열린 일본 지진피해 돕기 성금모금에 직접 참여했다.

양 할머니의 일본 돕기가 의미깊은 것은 2009년 9월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이 한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했던 ‘99엔 소송’의 당사자이자 1944년에 있었던 도난카이(東南海) 지진 당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양 할머니는 “우리에게 일본이 악독하게 했지만 뉴에서 해일이 덮치는 장면을 보니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모두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 재앙을 딛고 다시 일어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대 일어일본학과는 16일 부터 교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피해지역 돕기 모금활동에 들어간다. 또 전남대 김운수 총장은 교류협정을 체결한 일본 내 47개 대학의 총장에게 위로전문을 보냈으며, 오는 17일에는 전남대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 교수 및 유학생 20명을 초청·위로하고 이들 가족의 피해상황을 파악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원침 (8268) 김장두



전기 모기채 들고 위험 광주 남구 강도사건 잇따라

광주시 남구에서 강도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편의점에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침입해 종업원 김모(여·23)씨를 위협하고 카운터에 보관돼 있던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담배를 산 뒤 돈을 지불해 금고를 열었는데 갑자기 현금을 빼앗았다”고 진술했다. 20~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전기 모기채를 들이밀며 위협하다가 김씨가 모기채를 부러뜨리자 돈을 챙겨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 6시께에는 남구 진월동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혼자 길을 걷던 50대 여성의 현금 100만원이 든 손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돈선거 혐의 목포수협장 “혐의 없음”

목포경찰, “증거 부족” ... 5명만 기소

공소시효를 눈앞에 두고 불거진 ‘목포수협장 금품 선거 사건’이 선거 비리에 연루된 조합원 5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진수)은 15일 목포수협장 보결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박모씨 등 5명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 치러진 목포수협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15만~22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공소시효(15일)를 20여일 앞둔 상태에서 “선거 과정에서 수억 원이 살포됐다”는 제보와 함께 시작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또 검찰은 ‘금품 선거’ 개인 의혹이 제기된 목포수협장 최모(59)씨 등 4

명에 대해서는 증거 및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김모(52)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1억2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선거인이 아니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수협법이 정하는 매수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됐다. 또 최씨의 아들이 40만 원을 제공한 부분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엇갈려 혐의 없음 처분됐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지진 대피훈련

제383차 민방위 날인 1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지하 1층 대피소에서 열린 ‘지진 발생 대비 훈련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북구청 공무원들의 안내로 대피 훈련을 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판돈 4800원이 도박?

서부경찰, 고스톱 친 4명 즉결심판 청구 ... 과잉단속 논란

광주의 한 파출소 경찰관들이 총 5000원 가량의 돈을 걸고 화투를 친 남성 4명에 대해 도박 혐의를 적용, 소속 경찰서에 즉결심판까지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서부경찰 광천파출소 경찰관들은 지난 1월 29일 서구 광천동 김모(66)씨의 집에서 판돈 4800원을 걸고 점당 100원 짜리 속칭 ‘고스톱’을 친 김씨 등 50~60대 남성 4명을 도박 혐의로 불잡았다.

광천파출소 경찰관들은 김씨 등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도박을 한 것으로

간주해 사건을 서부서에 넘겨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부서는 이웃 사이인 김씨 등 4명이 고스톱을 치면서 건 돈이 모두 합쳐 48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서부서는 이들에 대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내사종결’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의 파출소 경찰관들이 오락 수준의 화투 게임에 대해 무리하게 도박 혐의를 적용해 당사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경찰력 낭

비까지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광천파출소 관계자는 “도박으로 보기에 판돈이 매우 적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근 주민들로 부터 자주 신고가 들어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다방에서 판돈 2만 2900원을 걸고 점당 100원 내기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해 판돈의 액수 등을 고려해 지난 2009년 무죄 판결한 바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20대 男 2명 승용차 안에서 동반자살

화순군 능주면에서 발견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2명이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오전 10시 55분께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농로에서 정모(29·대구), 조모(25·광주)씨가 NF쏘나타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놓은 채 숨져 있는 것을 인근 공업사 직원 김모(5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전날 밤 10시께 농로에 주

차하는 것을 봤는데, 다음날 오전까지도 승용차가 그대로 놓여 있어 가보니 남자 2명이 운전석과 뒷좌석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차 안에서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 “살기 싫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와 함께 빈 맥주캔 4개와 타다 남은 번개탄, 신분증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동반 자살한 것이 아니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장자연 편지 필적 감정 국과수, 오늘 결과발표

경기도지방경찰청은 15일 ‘장자연 편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가 16일 통보되면 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지난 9일부터 경찰에서 의뢰받은 장씨의 지인이라고 자처하는 수감자 전모(31)씨가 장씨에게 받았다는 편지 원본 24장과 전씨의 아내와 아내의 친구 명의로 작성된 편지 원본 10장을 대상으로 장씨 친필, 전씨 친필과 비교 분석하며 필적 및 지문 감정을 해왔다.
/연남뉴스

상나팔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아버지의 돈과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나간 ‘침입’ 20대가 여실론 실수로 경찰서행

○15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황모(20)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버지(50)가 잠든 사이 방바닥에 놓여있던 아버지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고,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가출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이날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말했다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황씨는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경찰의 확인 전화를 무심결에 받았다가 딸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편입수학,TEPS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김영편입학원

www.kimyo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강남 1일